

# 초장수(超長壽) 시대의 노후자산 운용

2019.07.16

## CONTENTS

---

### I. 노후자산 운용의 새로운 위기, 초장수(超長壽)

---

### II. 초장수에 대비하는 노후자산 운용전략

1. 고령 전·후기 자산운용을 구분한다.
2. 종신휘연금 수령은 가급적 늦춘다.
3. '시간차' 배치 모델을 구축한다.

---

### III. 시사점

심현정 선임연구원

02-3774-6984 | hesed\_shj@miraeasset.com

## < 요약 >

### ◎ 초장수(超長壽)로 인한 수명의 비약적 연장은 은퇴자의 노후자산 운용에 위기가 될 수 있음.

- 초장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은퇴기간 연장은 자산 고갈의 위험을 높이고, 은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야기함. 또한 신체적·인지적 건강이 악화되는 고령 후기가 길어져 이 시기의 자산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짐.
- 은퇴자들은 현재 자신의 은퇴설계가 초장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초장수에 대비하는 새로운 노후자산 운용 전략을 모색해야 함.

### ◎ 초장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노후자산 운용 전략을 수립해야 함.

#### ① 고령 전·후기의 자산운용을 구분한다.

- 전기 고령자 (만 65-74세)는 비교적 건강하고 생활 자립도가 높지만,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는 치매 등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일상생활에서 의존성도 증가함.
- 고령 전·후기의 생활양식이 다를 뿐 아니라 고령 후기로 갈수록 스스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므로 노후자산 운용과 인출방식도 달라져야 함.

#### ② 종신행 연금 수령은 가급적 늦춘다.

- 종신행 연금은 장수리스크를 가장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음.
- 종신행 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연금 수령 개시를 늦춤으로써 자산 운용 기간을 늘리고, 종신행 보증 비용을 줄여 더 많은 연금을 확보하는 것임.

#### ③ ‘시간차’ 배치 모델을 구축한다.

- 고령 전·후기의 자산운용을 구분하고, 종신행 연금 수령을 늦추는 원칙을 조합하면 ‘시간차’ 배치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
- 금융자산을 은퇴 초반에 전진 배치해 적극적으로 운용하면서 먼저 인출하고, 종신행 연금은 후진 배치해 연금 수령을 늦추는 ‘시간차’ 배치를 하면 오래 살수록 이익이 되는 노후자산 구조를 가질 수 있음.

### ◎ 은퇴자들은 노후자산 운용에 있어 초장수로 인한 위험을 함께 고려하는 ‘확장된 위험 프레임’을 가져야 함. 정부와 금융회사 역시 수명의 비약적 연장과 후기 고령기 연장의 파급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와 금융서비스 마련에 힘써야 함.

## I. 노후자산 운용의 새로운 위기, 초장수(超長壽)

### ◎ 수명연장이 보편화된 가운데 평균 기대수명을 넘어서는 초장수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후 생존확률이 높아지고, 기대여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수명연장은 보편화된 추세로 인식되고 있음.

· 2005년 당시 60세 인구가 8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47.9%였으나, 2017년 60세의 경우 63.6%가 85세까지 생존할 것으로 추정됨. (자료: 통계청 완전생명표)

— 나아가 노화를 억제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첨단 의학,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기대수명이 퀀텀점프<sup>1)</sup>하여 140세 이상의 초장수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2015년 美 ‘타임’지는 과학저널 ‘Nature’에 실린 연구를 인용해 노화억제제 ‘라파마이신’이 인간의 기대수명을 142세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 보도함.

### ◎ 초장수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은퇴자의 노후자산 운용에 위기가 될 수 있음.

— 첫째, 초장수로 은퇴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져 노후자금이 부족해질 수 있음.

· 은퇴생활이 지속될수록 은퇴자의 기대여명은 처음 예측보다 늘어나며, 초장수하면 은퇴생활이 2-30년 더 길어질 수 있음.

※ 1980년 당시 60세의 기대여명은 16.6년이었으나 10년 뒤 1990년까지 생존한 경우 기대여명은 경과된 10년을 뺀 6.6년이 아닌 11.7년으로 길어짐.

※ 기네스 기록상 세계 최고령 생존자인 일본의 다나카 카네(116세, 1903년 출생)가 60세였던 1963년 60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18.5년이었으나 그녀는 3배가 넘는 56년 간 생존하고 있음.

— 둘째, 노후자산 고갈에 대한 은퇴자의 심리적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음.

· 초장수는 노후자산 조기 고갈의 우려를 증대시키며, 수명이 늘어나면서 불가피하게 급증하는 의료비 역시 은퇴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킴.

※ 日 NHK스페셜은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에서 자산 고갈이 두려워 예금이 있어도 쓰지 못하고 치료도 받지 않은 채, 과도하게 소비를 줄여 사는 고령자들의 비참한 삶을 조명함.

— 셋째, 고령 후기 신체적·인지적 건강 악화로 인해 자산관리 능력이 저하됨.

· 고령 후기로 갈수록 치매 발병률이 급증함. 은퇴자들은 노화와 질병으로 서서히 자립적인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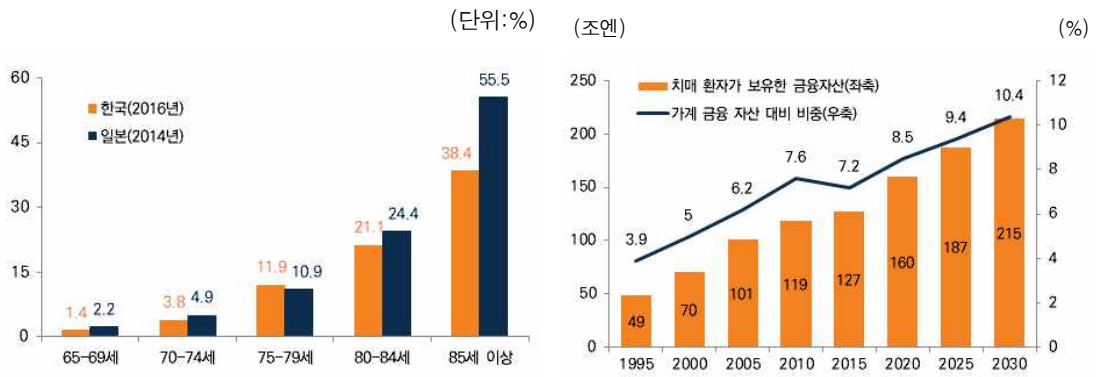
1) 퀀텀점프(Quantum Jump): 단기간에 비약적인 성장이나 발전을 이뤄냄. 양자(Quantum)가 전이(轉移)할 때 계단처럼 불연속적으로 대약진하는 것을 뜻하는 물리학 용어에서 유래함.

활이 힘들어지고, 노후자산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게 됨.

※ 2017년 말 기준 일본 치매환자가 보유한 금융자산, 이른바 ‘치매머니’는 143조 엔에 이룸.  
치매머니는 치매 환자들이 자산관리를 하지 못해 금융기관에 방치되는 돈으로, 본인 이외 자금 인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 모두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

<도표1> 연령대별 치매 유병률

<도표 2> 일본 치매환자 보유 금융자산 추계



※ 자료: 韓 2016년 치매역학조사  
日 ‘일본의 치매 노인 인구의 장래 추계에 관한 연구’  
후생노동과학연구비 보조금 특별연구사업

※ 다이이치생명 경제연구소 (2018)  
‘치매환자의 금융자산 200조 엔의 미래’

◎ 초장수로 인한 노후자산 운용의 위기와 도전 과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노후자산 운용전략을 수립해야 함.

- 기대여명을 예측하기 힘든 초장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예비)은퇴자들은 현재 자신의 은퇴설계가 초장수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지 점검해야 함.
- 초장수로 인해 고령기의 삶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특히 고령 후기에 변화될 생활 패턴과 니즈에 맞는 적절한 은퇴소득 확보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자산 조기고갈의 위험에 대비하는 동시에 한정된 자산으로부터 은퇴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자산운용·인출 전략을 수립해야 함.

## II. 초장수에 대비하는 노후자산 운용전략

### 1. 고령 전·후기 자산운용을 구분한다.

◎ 고령 전·후기 은퇴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간에 적합한 노후자산 운용 및 인출 방식을 취해야 함.

-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동질적 집단이라기보다 연령 변화와 생활 자립도에 따라 다양한 니즈와 생활패턴을 가진 이질적 집단으로 이해되어야 함.
  -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칭하는데, 그 중 만 75세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전기 고령자, 이후는 후기 고령자로 구분함. (Negarten, Moorn, Low, 1995)
  - 노년기는 자립도에 따라 ‘자립 생활기’, ‘자립도 저하기’, ‘요양이 필요한 시기’로 구분함. (도쿄대 고령사회 종합연구소, 2019)
- 고령 전기 은퇴자는 비교적 건강하며, 생활자립도가 높고 소비 패턴도 중년기와 거의 유사함. 자기 판단에 의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고 생애주기 상 다양한 가족 내·외부 활동이 계속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 니즈가 큼.
- 반면 고령 후기에 접어들면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의존성이 높아짐. 고령 후기의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에 대응할 안정적인 종신·고정소득이 필요함.

<도표 3> 고령 전·후기 생활 및 자산/소득 관련 특성

		고령 전기 (65~74세, young-old)	고령 후기 (75세 이상, old-old)
생활 특성	생활 자립도 측면	비교적 건강함. 자립적, 자주적 생활 영위	신체적, 정신적 기능 약화. 일상생활 의존성 증가
	지출 측면	중년기 소비패턴과 유사하나 교통비, 의복비 지출은 축소	식사 마련 및 개인 돌봄 서비스, 의료비 지출 크게 증가
자산/ 소득 관련 특성	여유(유동)자금 필요	高	低
	자기 판단에 의한 자산운용 가능성	高	低
	고정소득 필요성	中	高
	종신행 연금 필요성	低	高

※ 출처 : 이인정(1999), 노년기 전기와 후기의 차이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구혜경·배순영(2018), 고령자의 소비생활 현황 및 변화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 ◎ 고령 전기 : 금융자산의 적극적 운용과 탄력적 인출 필요

- 은퇴 초기의 다양한 자금 니즈에 대응하면서 장수를 대비해 자산의 존속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출해야 함.
  - 은퇴 초기에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성인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지속되어 기본 생활비 외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수 있음.
  - 고령 전기에는 시간제 일자리 등을 통해 소득 활동을 할 여력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일을 통해 기본 생활비를 조달하고 추가로 필요할 때만 자산을 탄력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좋음.
- 자금의 용도를 구분하고, 길어진 은퇴생활기에 맞게 장기투자의 장점을 살리는 자산운용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수명 연장 시 노후자산 투자 가능 기간도 늘어나게 됨. 장기 투자 시에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하더라도 손실위험을 낮출 수 있음.
    - ※ 주식 투자 시 원금손실 확률은 장기 투자할수록 하락함. (연 수익률 4.46%, 변동성 14.65%)  
1년 투자 시 원금손실 확률 38.0% → 10년: 16.8% → 20년: 8.7% → 30년: 4.8%  
(자료: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리포트 26호)
  - 의료비, 간병비 등 고령 후기에 지출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점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은퇴 초기부터 계획을 세워 장기 투자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임.

## ◎ 고령후기 : 자산의 자동적 운용과 정기적 인출 필요

- 고령 후기에는 추가적인 소득활동이 쉽지 않고 자기 판단 하의 자산운용이 어려워지는 반면,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할 고정 소득의 필요성은 커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자산이 운용되고 정기 소득이 발생하는 자산 구조가 필요함.
- 은퇴소득원 중 종신형 연금은 초장수하더라도 사망 시까지 안정적인 정기 소득을 보장하며,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자력에 의한 자산 운용 및 인출 부담도 해소됨.
- 고령 후기에 치매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인지·판단 능력 및 자기 결정권 저하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임. 이에 대비해 자산을 보호하고 정기적인 소득 인출을 보장하는 신탁 상품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 일본의 후견제도지원신탁 : 성년후견제도에 따라, 후견인이 재산관리, 신장보호를 위하여 피성년 후견인인 치매자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신탁. 수익자의 신탁재산을 보호하면서, 신탁재산을 정기적으로 정액 분할 교부하여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함.

## 2. 종신형 연금 수령은 가급적 늦춘다.

● 종신형 연금은 노후자산의 수명을 수급자의 사망 시점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죽기 전에 자산이 고갈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

- 주요 종신형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생명보험사의 연금보험이 있으며, 종신형 연금 수급자는 사망할 때까지 일정 연금액을 보장받아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 효과를 누림.

<도표 4> 주요 종신형 연금 특징

구분	국민연금 (공적연금)	주택연금 (국가보증 역모기지)	연금보험 (사적연금)
정의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받아 고령기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노령연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	거주주택을 담보로 연금형태로 매월지급금을 받는 대출. 국가에서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증함.	보험계약자가 지불한 보험료를 운용하여 피보험자의 종신(또는 일정 기간)까지 연금을 지불하는 저축성 생명보험
특징	-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가입해야 하는 국가의무 보험 -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시 연금 수령 가능 - 매년 소비자물가변동을 감안해 연금액 조정	-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만 60세 이상 -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 주택가격 1.5억원 미만은 우대방식(최대 월지급금 13% 증액) 가입가능	- 종신형 연금에 지급보증기간을 설정해 일찍 사망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만큼의 연금액 지급 가능 - 즉시형 연금은 목돈을 일시에 불입한 후 연금형태로 수령
운용주체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생명보험회사
지급방식	종신형	종신(혼합)형,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종신형(보증부, 초기집중형), 확정기간형, 상속형 등

● 종신형 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수급시기를 가급적 고령 후기로 늦춰 종신보증 비용을 낮추고 연금 소득을 늘리는 것임.

- 연금 수급을 늦추는 만큼 인출 전에 자산(국민연금 및 연금보험 불입액, 거주 주택)이 투자되는 기간이 길어져 연금 재원이 늘어나게 됨.
-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출수록 사망 확률은 증가하고 예상 연금 지급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종신형 연금의 보증 비용이 감소함.

● 종신형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월 연금액이 증가하며, 수령 연기 손익분기점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을 연기했을 때의 누적 연금수령액이 연기하지 않은 경우보다 많아짐.

### ① 국민연금 수령 연기

- 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지급 연기를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까지 지급

연기가 가능함. 연기 후 수령할 때 조정된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1개월 당 0.6%를 가산한 금액을 받으며, 60개월(5년) 연기 시 36%가 가산됨.

- **유의점** : 수령 연기 손익분기점 전에 사망하게 되면 누적 연금 수령액이 연기하지 않은 경우보다 적어 불이익이 될 수 있음.

**<도표 5> 국민연금 수령 연기 (62세 →67세) 효과**  
(만원)

	62세 수령	67세로 수령 연기	△
최초 월 연금액	91	143.6	52.6
누적 연금수령액 (90세)	42,043	52,108	10,065
누적 연금수령액 (100세)	62,930	82,036	19,106
누적 연금수령액 (110세)	88,265	118,339	30,074



※ 가정: 1) 62세 월 91만원(20년 이상 가입자 평균)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뒤로 수령시기 연기  
2) 기본연금액산출시 A값 상승률 연 3.02%, 연금 수령 이후 소비자물가변동률 1.95% 반영

**② 주택연금 가입 연기**

- **방법**: 주택연금은 가입과 동시에 대출이 실행되어 연금을 받는 제도여서 가입 후 연금 수령 시기만 연기할 수는 없고, 주택연금 가입 자체를 늦추는 방식을 택해야 함.
- **유의점**: 가입을 연기할 시점에 주택 가치가 하락하거나 대출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산정되는 연금액이 줄어 가입을 늦추는 실익이 적을 수 있음.

**<도표 6> 주택연금 가입 연기 (62세 →67세) 효과**  
(만원)

	62세 가입	67세로 가입 연기	△
최초 월 연금액	63.3	86.3	23
누적 연금수령액 (90세)	22,028	24,854	2,826
누적 연금수령액 (100세)	29,624	35,210	5,586
누적 연금수령액 (110세)	37,220	45,566	8,3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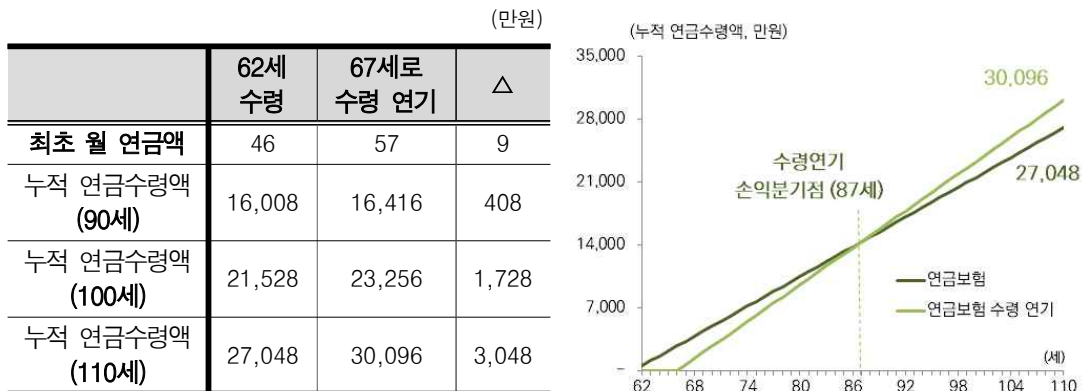
※ 가정: 1) 62세에 시세 2억 9500만원(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67세에 시세 3억 2890만원(연 2.2% 가격 상승, 10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상당의 거주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형 연금 가입  
2) 67세 시점 주택연금 계리 조건은 현 시점(62세)과 동일



### ③ 연금보험 수령 연기

- 일반적인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적립 또는 거치식으로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면, 이를 일정기간 운용하여 연금재원을 확보한 후, 가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금을 지급하도록 설계됨.
- **방법:** 가입자는 연금 수령 방법과 개시 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춤으로써 연금재원이 운용되는 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늘릴 수 있음
  - ※ 즉시연금의 가입시점을 미루는 방식으로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도 있으나, 가입시점에 따라 연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생명표가 다른 점을 유의해야 함.
- **유의점:** 연금 수령 전 거치기간 동안 자산운용 수익률이 낮거나(금리 하락 및 투자성과 부진 등), 연기된 연금을 수령할 때 공시이율이 하락하면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음.

**<도표 7> 연금보험 수령 연기 (62세 →67세) 효과**



※ 가정: 1) 55세 남자 1억원 거치형 연금 가입, 각각 7년, 12년 거치 후 62세 및 67세에 수령시작  
 2) 12년 지급보증, 공시이율 2.61%

- 미국에서는 연금 수령시기를 늦추면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보험료가 저렴한 ‘장수연금’이 도입되어 각광을 받고 있음.
  - 고령 후기에 연금을 수령하면 예상 수령기간이 짧아지므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 ※ 퇴직연금계좌에 편입 가능한 적격장수연금(QLAC)은 일반 연금에 비해 보험료가 40% 가량 저렴하며, 평균 가입연령은 70세, 평균 연금 수령 연령은 81세임. (LIMRA, 2017)
  - 우리나라 종신연금보험에는 지급보증기간이 있는 반면, 미국의 장수연금은 지급보증기간이 없어 연금 수령기간에 관계없이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종료되므로 연금 보험료가 저렴함.

### 3. '시간차' 배치 모델을 구축한다.

#### ● 노후자산을 '탑형' 배치에서 '시간차' 배치로 전환하면 오래 살수록 이익을 보는 노후자산 구조를 만들 수 있음.

— 은퇴시점에 동일한 규모의 자산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자산의 배치 방식과 인출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노후에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총량이 달라짐.

##### ① '탑(塔)형' 배치

— 노후소득원을 '탑(塔)'처럼 수직으로 쌓는 배치임. 3층 연금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기초생활비, 표준생활비, 여유생활비를 마련한다고 알려짐.

— '탑형' 배치는 노후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산에서의 소득 인출과 연금 수령을 동시에 시작함. 62세에 국민연금을 개시하면서 종신연금보험 수령도 함께 시작하며, 이 둘로 충당하지 못한 생활비 부족분은 금융자산에서 인출함.

##### ② '시간차' 배치

— 노후 소득원의 인출 시점을 달리하는 방법임. 은퇴 초기에 금융자산을 전진 배치하여 먼저 인출하고, 종신편 연금은 가능한 후진 배치해 연금수령을 늦춘 모델임.

— 국민연금 및 종신연금보험 수령시점을 67세로 연기하고, 67세 전까지 금융자산을 인출해 생활비를 마련함. 67세 시점에 금융자산 잔액으로 즉시연금보험을 구입함.

#### <62세 남성 은퇴자의 노후자산 인출 가정>

※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50대 가계 평균

- 금융자산 12,175만원 / 퇴직(연)금 11,925만원 (퇴직 전 월 소득 477만원 25년 근속 기준)
- 거주주택 평균가격 18,446만원
- 필요생활비 240만원(최소 및 적정생활비의 평균)

※ 금융자산 수익률 4.5%, 물가상승률 1.95% (10년 CAGR 소비자물가상승률)가정  
종신연금보험은 시뮬레이션 편의를 위해 일시납 즉시연금을 가입하는 것으로 가정

※ 금융자산에서의 생활비 인출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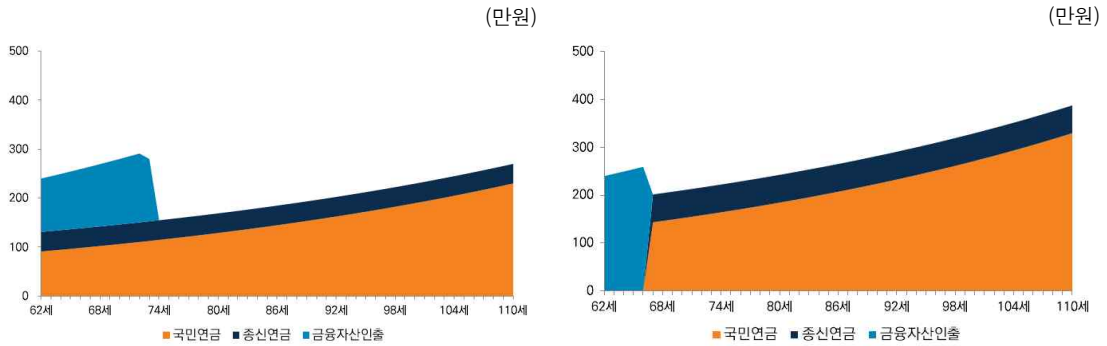
- 현실의 일반적인 은퇴자는 인출 시 금융자산 보유액과 예상 은퇴기간을 비교해보고 금융자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필요생활비 전액을 다 인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 인출 사례에서는 은퇴자가 필요한 생활비 전액을 모두 인출하는 것으로 가정함.

- 본 시뮬레이션의 목적이 노후자산 배치(종신편 연금 연기)에 따른 누적 연금액 차이를 확인하는데 있고, 자산고갈 시점 및 월 소득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 상 은퇴 초기부터 필요한 생활비 전액을 인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도표 8> 노후자산 배치 방식 따른 노후소득 흐름 및 누적 수령액 변화

A. '탑형' 배치

B. '시간차' 배치



	해당 시점 누적 은퇴소득 수령액					
	65세	70세	80세	90세	100세	110세
'탑형' 배치 (A)	11,861	28,036	51,897	73,915	99,601	129,737
'시간차' 배치 (B)	11,861	24,854	52,151	83,781	120,666	163,927
차이 (B-A)	0	-3,182	254	9,866	21,065	34,190

- '시간차' 배치 모델의 핵심은 종신휘연금의 수령시기를 연기함으로써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데 있음. 은퇴 초기에는 '탑형' 배치를 통해 얻는 소득이 더 많지만, 80세 이후 더 오래 산다고 가정하면 '시간차' 배치를 통해 얻는 누적 은퇴소득이 더 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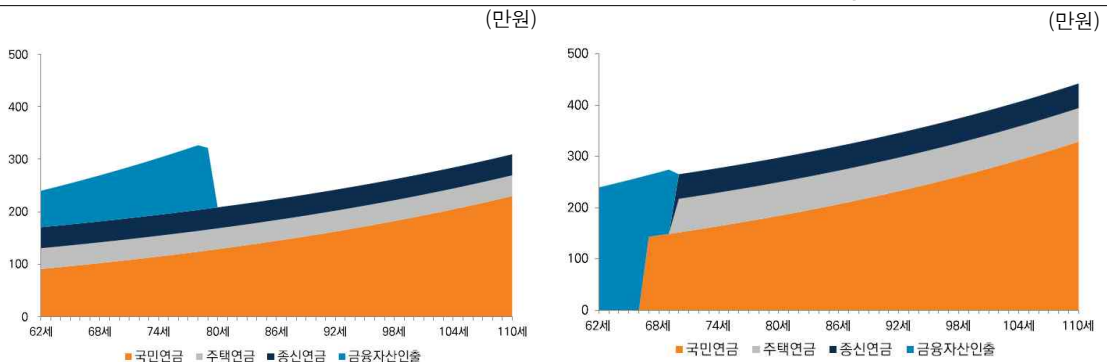
◎ 주택연금을 추가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종신휘연금 수령을 늦추는 '시간차' 배치 모델이 '탑형' 배치 모델보다 장수할수록 이익이 큼.

- '탑형' 배치는 국민연금, 주택연금, 종신휘연금 수령을 62세에 일시에 개시하고, '시간차' 배치는 국민연금은 67세, 주택연금과 종신휘연금은 70세로 수령을 늦춘 모델임.

<도표 9> 노후자산 배치 방식 따른 노후소득 흐름 및 누적 수령액 변화 (주택연금포함)

A. '탑형' 배치

B. '시간차' 배치



※ 탑형 배치는 62세에 즉시연금 1억원 가입, 시간차 배치는 70세 시점 금융자산 잔액 9900만원으로 즉시연금 가입

	해당 시점 누적 은퇴소득 수령액					
	65세	70세	80세	90세	100세	110세
'탑형' 배치 (A)	11,861	28,036	63,759	90,529	120,968	155,855
'시간차' 배치 (B)	11,861	27,863	61,821	100,111	143,656	193,576
차이 (B-A)	0	-173	-1,938	9,582	22,688	37,721

-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경우 82세를 기점으로 노후자산을 '시간차' 배치했을 때 얻게 되는 누적 은퇴소득이 더 많아짐. (82세 말 누적 소득액 A형 68,852만원, B형 69,105만원)

## IV. 시사점

● 은퇴자들은 노후자산 운용 시, 수익률 변동 뿐 아니라 초장수로 인한 위험까지 고려하는 ‘확장된 위험 프레임’을 가져야 함.

- 일반적인 자산운용에서는 투자자의 위험회피도가 우선적 고려 요소이나, 노후자산 운용에서는 투자 위험 외에 초장수로 인한 자산의 조기고갈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함.
- 고령 후기에 신체적·인지적 건강 악화로 자산을 운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사기 피해를 입어 자산에 손실을 입지 않도록 이 시기의 자산관리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함.

● 금융회사는 은퇴자들이 긴 노후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산관리 전략 수립을 돕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는 은퇴자들에게 초장수 위험에 대한 대비가 포함된 체계적인 노후자산 운용·인출 전략(retirement planning)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연계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도 필요함.
- 고령 전기 은퇴자를 위해서 다양한 자산 운용과 인출 솔루션을 마련하고, 신체적·인지적 능력이 저하된 고령 후기 은퇴자를 위해서는 노후자산 보호 및 관리에 특화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예시) 후기 고령자를 위해 도입된 일본의 유언신탁은 유언서의 보관 및 집행업무를 대신 수행해 주며, 후견제도지원신탁은 가정법원의 지시에 따라 피후견인의 신탁자산이 관리되도록 개발됨.

● 정부는 고령자 친화적인 금융 환경 및 제도를 도입해 고령자의 금융 복지를 높이고, 초장수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금융시장 성장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초장수로 인해 노후가 길어지더라도 은퇴자들이 안심하고 노후 자산을 운용·관리할 수 있는 금융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고령자의 금융 복지가 높아질 수 있음.
  - 2019년 5월, G20 회의는 '금융 친화적 글로벌 파트너십'(GPGFI)을 제언함. 이는 고령화로 인지·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의 생활비 확보 방안과 고령자 친화적 금융 서비스 도입을 논의함.
- 고령자가 자산 고갈을 우려해 자산 운용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치매 등 질병으로 금융자산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전체 금융시장의 성장 동력도 약화될 수 있음. 정부는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고령자의 노후자산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해야 함.

##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은퇴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은퇴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 01 은퇴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고령화로 인해 국내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은퇴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 02 은퇴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

집중투지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은퇴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

### 03 은퇴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은퇴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 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

### 04 은퇴자산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은퇴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

### 05 은퇴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은 금리는 은퇴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계획을  
세우고 적립시기부터 그에 맞게 은퇴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

오늘날 공적 사회보장 제도만으로는 노후자금을 충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기에 저금리·저성장·고령화라는 '2低1高 시대'를 맞아 은퇴자산을 축적하고 운용하는 데 개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은퇴콘텐츠 개발 및 연구, 전문적인 은퇴교육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은퇴리포트를 통해 은퇴설계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미래에셋은퇴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28]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얻는 개인연금 자산관리 아이디어, 2016.8

[29] 100세 시대 은퇴재무설계, 이제는 소득배분이 필요하다, 2016.9

[30] 노벨경제학자 3인에게 배우는 은퇴재무설계, 2016.11

[31] '은퇴자금 승수'로 알아보는 나의 은퇴자금 계산법, 2017.1

[32] 5060 은퇴리스크 매트릭스, 2017.3

[33] 노후자금 인출의 숨겨진 위험 시퀀스리스크, 2017.5

[34] 덩케르크 철수작전에서 배우는 노후자금 인출전략, 2017.10

[35] 투자자산을 연금화(化)하는 5가지 방법, 2018.2

[36] 연금자산의 TDF 투자현황과 개선방안, 2018.4

[37] 국제비교를 통해 본 우리나라 가계 자산 특징 및 시사점, 2018.10

[38] Next 20년, 내 자산을 어디에 둘까-일본의 '과거 20년'이 주는 교훈, 2018.11

[39] 은퇴자를 위한 피사의 4탑, 2018.12

은퇴리포트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retirement.miraeasset.com](http://retirement.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은퇴리포트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공식견해가 아닙니다.  
본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제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